

제2차 ['20~'24]

#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

- 중견 정책 2.0 -

2020.2.

관계부처 합동

## 목 차

I. 수립 배경 및 개요 .....	1
II. 중견기업 현황 .....	4
III. 1차계획 성과 및 한계 .....	6
IV. 비전 및 추진전략 .....	10
V. 세부 추진과제 .....	11
1. 산업·지역·신시장 진출 선도역할 강화 .....	11
2.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.....	19
3. 법·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 .....	26
VI. 과제별 이행방안 .....	29

## I.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개요

### 1. 수립 배경 (중견기업의 중요성)

#### ◇ 중견기업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리스크 보완 가능

- 소수의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**대기업이 흔들리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 부담** 존재
  - \* 핀란드는 수출기여도가 20% 이상('99~'07)이었던 노키아가 흔들림에 따라 큰 경제침체 경험(핀란드경제연구소)
- **글로벌 경쟁력과 일정 규모를 보유한 중견기업이 많아지면 국가·지역 경제의 리스크 완화 가능**
  - \* 교토형 기업(교세라 등 중견)이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일본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(교토기업의 글로벌경쟁력, 삼성경제연구소)

#### ◇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업군

- 우리 중견기업은 **주력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소재·부품·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기업군**
  - \* 제조중견기업(1,053개사, 규모기준) 중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은 86%(902개)
- 가치사슬에서 **대기업의 협력사이면서 중소기업의 수요기업 역할**을 하고 있는 **우리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**
  - \* 모노머(中小: D사) → 고분자재료(中堅: K사) → 포토레지스트(中堅: D사) → 반도체칩(大: S사)

#### ◇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

- **신규 일자리 창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초임도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**
  - \* '18년 상장기업 일자리 증가 수(21,131개) 중 중견이 51.3%(10,841개) 차지(중견연)
  - \* 대졸 초봉('19.2, 인크루트) : (大)3,576만원, (中堅)3,377만원(대기업 대비 94%)

“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”하고 “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”을 위해 **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 필요**

## 2. 기본계획 개요

- 법적근거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
  - \* 산업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 시행을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의무
- 기간 및 주기 : 5년마다 수립·시행(1차 기본계획 '15~'19)
- 목적 및 의의
  - 중견기업의 **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**를 위한 **중장기 정책** 제시
  - “중소 → 중견 → 글로벌기업”으로 성장할 수 있는 **선순환 기업 생태계**를 구축하고 **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**에 기여
- 계획의 범위

1.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
2.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, 성장 현황 및 전망
3.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저해로 작용하는 제도·시책의 개선
4. 조세·금융·기술개발·인력·경영혁신·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
5. 규모, 성장률 등 중견기업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 등

- 추진 경과
  - **정책 연구용역 실시**(‘19.5~12)
    - 중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, 중견기업 유형별 육성전략 등 수행
  - **중견업계 의견수렴**(‘19.4~’20.2)
    - 자동차, 기계, 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 간담회, 중견기업학회·중견기업연구원 등 전문가 간담회 실시(20여회)
  - **관계부처 협의**(‘19.10~’20.2)
    - 과제발굴을 위한 의견 조희(‘19.10~12), 기본계획(안) 회람(‘20.1~2)

국가	정책 동향
 독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'미텔슈탄트(Mittelstand)*' 개념하에서 관련 육성정책 추진 중 * 근로자 10~499명 &amp; 매출액 100만~5,000만 유로 미만 기업</li> <li>▪ 「미래형 미텔슈탄트 육성정책」(15), 「디지털 전략 2025 (Mittelstand 중심)」(16) 등을 통해 디지털화, R&amp;D, 창업 등 지원</li> </ul> <p>※ 별도의 중견기업 개념은 없으며 미텔슈탄트가 중소중견 포괄</p>
 일 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경제산업성은 해외시장 개척 잠재력이 큰 중견·중소기업을 "Global Niche Top(GNT)*" 기업으로 선정(14.3)·육성 중 * 세계시장(100~1,000억엔)에서 시장점유율 10% 이상인 기업</li> <li>▪ GNT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M&amp;A·금융·지식재산권·해외진출·인력확보 등 지원</li> </ul> <p>※ 법적 개념은 없으나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자본금 3억~10억엔, 근로자 300~1,000명 미만을 중견기업으로 간주</p>
 프랑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경제현대화법」에 중견기업(Entreprise de Taille Intermediaire) 법적근거*를 도입('08.7), 세제혜택·자금 등 지원 * 근로자 250~5,000명 및 매출 0.5~15억 유로 또는 자산 0.43~20억 유로인 기업</li> <li>▪ 공공투자은행('13.6월 설립)은 중소·중견기업에 수출보조금, 자본 투자, R&amp;D 자금 등 지원</li> </ul>
 미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중소·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R&amp;D·공정개선, 수출금융, 자금대출, 전문인력 이민 장려 등 추진</li> <li>▪ 연매출 1~30억불의 중견규모 기업 CEO를 회원으로 하는 「CEO Connection」을 설립('05)하여 기업입장 대변 활동 중</li> </ul>

## II. 중견기업 현황

## ◇ [경제기여도] 전체 영리법인 중 기업수 0.7%, 매출액 15.7% 차지

□ 중견기업 수는 '18년말 기준 4,635개('15년말 3,558개)

○ 규모기준 기업(업종별 매출액이 400~1,500억원 이상)이 2,228개(48.1%) 차지

※ 출처 : 통계청, 중견기업연합회

구 분	2015	2016	2017	2018
중견기업(개)	3,558	4,014	4,468	4,635
규모	1,706	1,795	2,123	2,228
피출자·관계	1,852	2,219	2,345	2,407

\* '17년까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변경('15, 5조→10조) 등 외부요인이 기업수 증감에 영향  
→ 외부요인 영향이 없는 '18년은 전년대비 167개사 증가

□ 기업 수 증가에 따라 매출·고용·수출 등 경제기여도 확대

※ 출처 : 통계청, 관세청

구 분	2015	2016	2017	2018
매출(조원)	620(14.5)	639(14.5)	738(15.5)	767(15.7)
고용(만명)	115(-)	125(12.7)	136(13.6)	141(13.8)
수출(억불)	904(17.2)	851(17.2)	909(15.9)	982(16.3)

\* 괄호는 영리법인 기업 중 중견기업 비중 \*\* 출처 : 통계청, 관세청

## ◇ [규모별] 매출액 3,000억원\* 미만 초기 중견기업이 다수

\* 조세특례법 등에서 세제 등 혜택 대상인 초기 중견기업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분류

□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이 4,005개로 대부분 차지('18. 86.4%)

□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10개('18. 2.4%)

※ 출처 : 통계청, 중견기업연합회

매출액 구간	2015	2016	2017	2018
3천억원 미만	3,036	3,470	3,868	4,005
3천억원~1조원	432	454	489	520
1조원 이상	90	90	111	110

## ◇ [업종별]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성

□ 제조업 비중이 39.1%(1,814개)로 대기업(21.1%, 495개), 중소기업(20.4%, 142,830개)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('18.)

□ 비제조업은 도소매업(15.1%), ICT(8.2%), 부동산(7.7%), 건설업(6.6%) 順

- (초기) R&D를 통한 제품혁신,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이 많지만 내부역량, 경험 부족으로 실행에 애로

\* R&D집약도('17) : 대기업 3.8%, 중견기업 2.0%, 중소기업 2.6%

- 부족한 R&D역량 보완을 위해 출연연 등 외부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주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중

\* 매출액 1~2천억원 기업 R&D형태('19. 실태조사) : (자체) 77%, (공동·위탁) 19%

- 우수 인력의 대기업 선호로 인해 혁신을 주도할 인재 확보가 어려워 AI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부족

- (초기이후)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규모 중견의 경우 기존 사업의 성장이 둔화·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신사업에 관심 집중

\* 매출액 0.5~1조원 기업 관심분야('19. 실태조사) : (신사업) 39% > (설비교체 등) 23%

- 신사업 성공가능성 검증·사업화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신규투자자에 필요한 금융조달에도 어려움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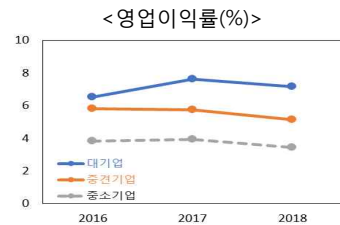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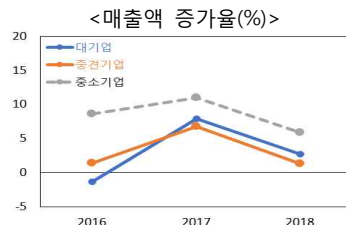
-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수 증가도 정체되는 양상('17. 111개 → '18. 110개)

- (관계·피출자) 규모가 중소기업 수준(평균매출 261억원)으로 중소·중견 시책에서 모두 배제되어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위치

\* 정부R&D사업 수행경험('19. 실태조사) : (관계·피출자) 7.1%, 《(규모중견) 20.3%

#### < 중견기업 공통 현황 >

- ◆ 3년간('16~'18) 전체 중견기업 성장성(매출액 증가율)은 대·중소보다 낮은 편이고 영업이익률도 하락('16. 5.8% → '18. 5.2%)



\* 중견기업 기업경영분석(한국은행, '19.12)

## Ⅲ. 1차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

### 1. 성과

#### < 제1차 기본계획 주요내용('15.6.) >

◇ (정책 목표) '19년 중견기업 수 5,000개, 수출 970억불 달성 등

◇ (주요 정책 과제)

1. 중소 →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	① 중소 → 중견기업 성장친화적 법령·제도 정비
	② "대기업" 용어 사용 법령 정비
2. 중견 후보기업群 발굴·육성	① 유망 중견·중소기업 집중 육성
	② 지역 단위의 중견 후보기업 지원체계 구축
	③ 중견 후보기업群 저변 확대
3. 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	① 기술혁신 역량 기반 확충
	② 세제·금융·수출판로 등 경영여건 개선
	③ 인력지원 및 장기재직 유도
	④ 명문 장수기업 지원
4.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정책기반 확충	①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참여 촉진
	②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에 선도적 역할 수행
	③ 중견기업 정책기반 확대

- '19년말 기업 수는 4,800개 전망으로 목표(5,000개) 대비 96% 달성 예상

- 수출은 '18년 982억불로 목표(970억불) 조기 달성

- 중견→중소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 다소 완화

- 중소기업 회귀점도 중견기업 비중이 감소('15. 6.9% → '19. 5.1%)

- 중견 진입이후 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 지속개선(80건)

\* 개선현황(~'19) : (고용) 24건, (기술) 12건, (투자) 18건, (수출) 10건 등

-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, 산학협력 등 혁신활동 증가

\* 세계일류상품생산 중견(개) : ('15)179 → ('19)271 / 기업당 산학활동(건) : ('15)3.0 → ('18)4.1

- 「중견기업 주간」 신설('18), TV홍보(KBS 중견만리, '19) 등 사회적 인식 제고

\* 중견기업 언급 회수(출처 : 정책여론수렴시스템) : ('16) 49,475건 → ('19) 89,979건

## 2. 한 계

### □ 산업·지역 내 중견기업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

- 소재·부품·장비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 상당수가 중견기업이나 그간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 수립 노력은 부족

\* '18년 규모기준 제조기업(1,053개사) 중 소재·부품 기업은 약 86%(902개)

- 지역에서의 중견기업 위상은 대기업과 유사하나 지자체 차원의 중견기업 육성노력은 일부에 국한

\* 부산시는 중견기업 육성 조례 제정·시행 중('16.8.)

⇒ 산업·지역 발전의 핵심 기업군으로 중견기업 재인식 필요

### □ 규모 및 특성별 맞춤형 지원정책 미흡

- 중견기업 정의상 규모가 다양\*하고 특성이 다른 기업군이 존재하나, 그간 초기 중견(매출 3천억원 미만) 육성 중심으로 정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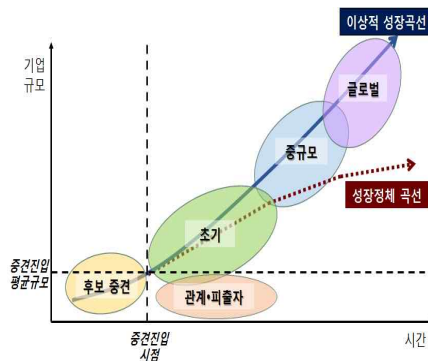
\* (규모기준) 매출 400~1,500억원 이상, (자산기준) 5천억원~10조원

- 성장정체를 겪기 시작하는 초기 이후 중견의 성장촉진 지원 필요

\* 매출 3천억원 이상 중견 중 연평균 매출 10% 이상 고성장 비율이 19%에 불과

-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관계·피출자 육성에 대한 고려 미흡

\* 관계·피출자 비중('18) : 51.9%



⇒ 유형별(규모/관계·피출자), 성장단계별(초기/성숙) 맞춤형 정책 요구

### □ 중소기업 지원정책과의 차별화 부족

- 혁신 성공사례를 발굴·확산하여 중견기업이 혁신역량 강화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 요구

-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활용하여 이를 초기 중견으로 확대하는데 머무름으로써 중견기업 정책으로서의 차별화 부족

⇒ 중견진입 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필요

### □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의 성장지원 정책의 효과 제고 필요

- 중견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중이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

\* 글로벌강소기업사업 등 수혜기업(약 3천개, '15~'19) 중 중견진입 기업은 극소수

- 중견 진입후 세제·금융 등 정부지원 시책 단절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회망하는 피터팬 증후군 여전

\* 중소기업 회귀검토 기업 비중('19) : (3천억 미만) 5.9%, (3천억 이상) 0%

\* '중소→중견' 진입시 지원배제 또는 신규규제 법령은 총 227건('19.10, 중견연구)

⇒ 체계적인 후보기업군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도약기반을 조성하고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한 성장걸림돌 제도의 지속 개선 필요

### □ 중견기업과 중소·벤처와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부족

- 중견·중소기업간 협력이 대금결제 등 공정거래 차원에 국한되고 신사업, 공동 해외진출 등 지속가능한 상생 노력은 부족

\* 상생협력활동 유형('19. 실태조사) : 상생결제시스템 26.1% > 해외동반진출 14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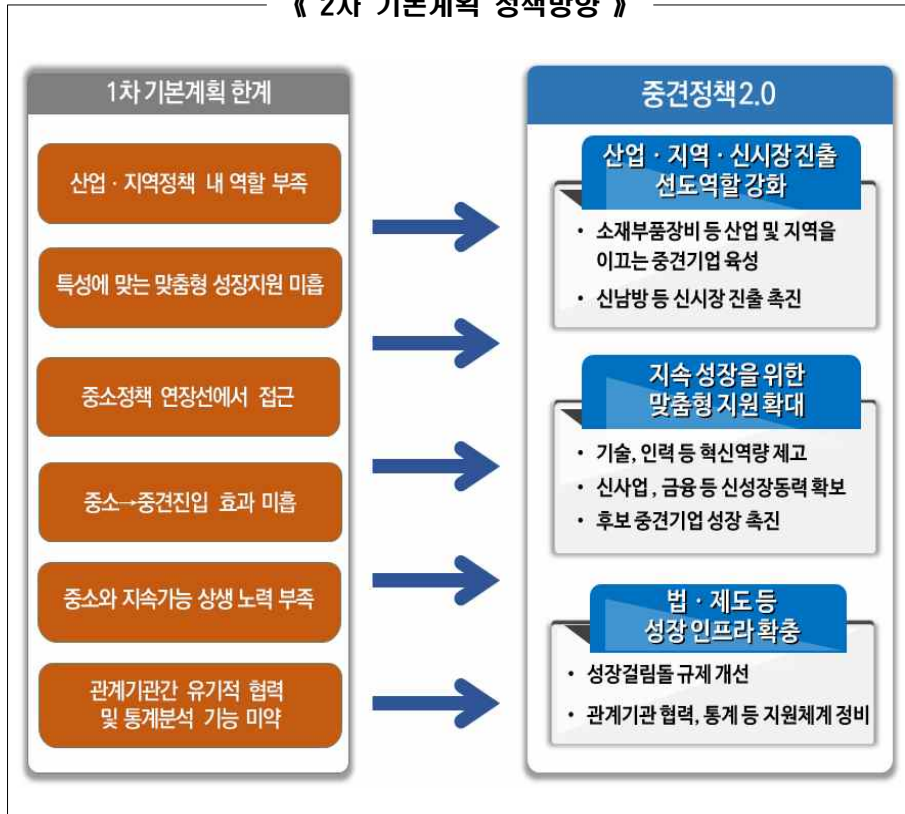
⇒ 중소·벤처와의 지속가능 상생협력 모델 발굴·확산 필요

## □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력 및 통계 기반 미약

-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체를 운영 중이나 중견기업 정책·제도·지원사업의 유기적 협력·연계는 부족
- 다양한 중견기업군의 성장실태를 파악·분석하기 위한 업종, 경영지표 관련 통계나 정책 연구 등 정책기반이 미흡
- \* 한국은행은 '중견기업 기업경영분석 통계'를 '19년부터 발표

⇒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계 등 정책기반 재정비도 필요

### 《 2차 기본계획 정책방향 》



## IV. 비전 및 추진전략

<b>비전</b>	<b>중견기업이 이끄는 혁신·포용성장 실현</b>
<b>목표</b>	<p>◆ <b>산업혁신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육성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중견기업 수(개) : ('18) 4,635 → ('24) 6,000</li> <li>*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(개) : ('18) 630 → ('24) 840</li> </ul> <p>◆ <b>중견기업 주도 경제활력 제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체 기업 중 중견 매출액 비중(%) : ('18) 15.7 → ('24) 17.0</li> <li>* 중견기업 수출액(억불) : ('18) 982 → ('24) 1,200</li> </ul>
<b>기본방향</b>	<p>◆ 중견기업이 <b>산업·지역 내 핵심주체</b>로 역할하도록 뒷받침</p> <p>◆ 성장단계·유형별 <b>맞춤형 지원</b>을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</p> <p>◆ 중견기업의 <b>자발적인 투자와 혁신역량 제고 활동 유도</b></p>

추진전략	세부 추진과제
1. 산업·지역·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	① 소재·부품·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② 신산업 및 주력산업 성장 주도 ③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④ 신남방·신북방 등 신시장 진출 활성화
2.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	⑤ 혁신선도 기술역량 및 인재 확보 ⑥ 신사업 및 사업재편 지원 강화 ⑦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⑧ 후보 중견기업 성장 촉진
3. 법·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	⑨ 성장걸림돌 규제·제도 개선 ⑩ 성장 지원체계 정비



## V. 세부 추진과제

### 전략 1 산업·지역·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

◆ **(현황)** 완제품에 필요한 고부가 핵심 품목을 공급하거나 산업·지역 생태계 내 대·중소 등과의 협업에 중심점이 되는 역할 요구

- 시장이 작아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기술난이도가 높거나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중견 고유영역 존재
- 상당수 중견은 특정 대기업에 종속되거나 내수시장에 안주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수준

\* 수출 중견기업 비중 36.2% / 세계 최고수준 기술보유 응답기업 5.8%(19. 실태조사)

◆ **(지원방향)** 산업과 지역 내 생태계를 중견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**경제활력 핵심 기업군**으로서 역할 확대

산업	소재·부품·장비		글로벌 전문기업화, 중견중심 대·중소 협력모델 발굴
	신 산 업	미래차	친환경·자율차 전환을 위한 중견 부품사 기술력 제고
		시스템반도체	파운드리·패키징 등 전문중견을 통한 메모리 위주 생태계 보완
		바이오헬스	차세대 기술확보를 통한 제약·의료기기 세계시장 선도
	주력산업		미래시장 대비를 위한 산업지능화 및 고부가가치화
지 역			지역경제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지역대표 중견 육성
신남방 등 신시장 진출			ODA 사업, FTA 체결 등을 통해 중견 진출기반 마련

### 가 소재·부품·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

◆ **소재·부품·장비 분야**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으로 성장 지원

- 산업 생태계에서 기술혁신과 협력모델을 주도하는 중견기업군 육성

-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여 소부장 6대 분야\*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

\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자동차, 전자전기, 기계금속, 기초화학

- 중견기업 전용시책 중심(월드클래스\*, 중견기업 글로벌지원사업 등) 중점 지원
- 특히, 핵심전략기술 분야 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은 '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(明匠) 기업'\*과 연계하여 R&D, 투자펀드, 세제 등 종합지원

\* '20~'24년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명장 기업 100개 육성

- 중견기업 중심 수요-공급기업간 협동 연구개발, 공급망 연계, 공동 시설 투자 등 협력사업 적극 발굴

\* 수요기업(대기업) + 전문 중견기업 + 중소 협력기업 등 협력모델 확산

- 발굴된 협력사업은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규제 개선 요청사항을 검토·제도화하고 R&D, 세제 등 패키지 지원

구분	주요 내용
R&D	· 예산사업(소재부품R&D 등), 기술지원(지재권 확보, 한-독 기술협력센터 등)
세제·자금	·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, 정책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
기업지원	·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연계 지원, 정보제공(기술동향·특허분석 등), 등

## 나 신산업 및 주력산업 성장 주도

### 1 3대 신산업 : 신산업 창출의 핵심기업군

#### 미래차 친환경·자율차 핵심부품 자립화

◆ 완성차 대기업과 동반성장해 왔으나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력은 낮음  
→ 전기차,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 필요

- (친환경차) 중견기업의 전기차·수소차 소재·부품 개발을 뒷받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확보

\*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개발 등 '20~'26년간 약 4천억원 투자

- (자율차) '24년 시내도로 주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차(레벨4) 개발을 위해 시스템·핵심부품·통신 등 중견 부품사 기술력 제고

\* 3D라이다 개발 등 '21~'27년간 1.7조원 규모 예타 진행중(만도는 3D라이다 상용화 개발중)

- (전환 지원) 권역별 「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」을 통해 컨설팅·기술·자금·인력 등 맞춤형 지원

## 시스템반도체 설계·생산·후공정 전문기업화

- ◆ 팹리스·파운드리 중건의 글로벌 진출이 미약하며 후공정(패키징) 기술력 제고 필요 → 설계에서 패키징까지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
- (팹리스) 5대 전략분야(자동차·바이오 등) 및 공공분야 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반도체 개발 검증·시제품 제작 등 지원
  - \*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개발('20~'29, 약 1조원), 설계지원센터 구축('20.4)
- (파운드리) '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(산은)' 등을 통한 중견 파운드리와 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전력반도체 등 R&D 확대
  - \* 신사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개발('17~'23, 836억원)
- (패키징) 융합형 첨단패키징 공정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중견기업 역량 강화 지원 (금년중 관련 예타 추진)

## 바이오헬스 차세대신약·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

- ◆ 국내 제약·의료기기는 1조원 내외 중견이 주도 중이나 신약 등 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생산력도 미약 → 미래분야 투자와 생산기반 강화
- (신약·의료기기) 표적항암제, 줄기세포치료제, 융복합의료기기 등 차세대 선도 유망기술 중점 개발지원으로 중견 기업의 성장 촉진
  - \* 바이오헬스 정부 R&D를 '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 확대
  - \*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('20~'25, 1.2조원 투자) 등
- (생산시설) 중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·장비 개발을 위해 수요-개발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지원
  - \* 바이오산업 생산고도화 기술개발 사업('20. 128억원) 등

## 2 주력산업 :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지능화 주도

### 일반기계 D.N.A 활용 산업지능화 및 신사업 대응

- ◆ 중국 등 후발국 추격이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 경쟁력은 미약 → D.N.A(데이터, 네트워크, 인공지능) 등 산업 지능화와 신사업 대응
- (산업지능화) D.N.A를 적용한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('20. 266억원)하고 중견 건설기계 분야 스마트화를 위해 장기·대형 R&D 프로젝트 추진
  - \* 스마트 건설기계 고도화 관련 예타 진행중('22~'26. 약 2,000억원)
- (실증지원) 지역별 중견기업 특화 품목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부품 평가, 품질 개선 등 혁신역량 제고 지원
  - \* 군산 스마트건설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사업('20. 23.6억원), 김제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('20. 20.8억원) 등

### 철강 고부가품목 미래투자 및 생산시스템 업그레이드

- ◆ 철강수요 둔화, 전방산업 부진 등 성장동력 회복이 중요 → 고부가 철강재 등 미래투자와 생산시스템의 스마트화·친환경화 추진
- (고부가가치화) 중견기업 특화품목의 고부가가치화 개발 지원
- (생산시스템) 대·중견기업이 참여하는 '산업 지능화 협력체계'를 조성('20)하고 AI를 접목한 전기로 사업장 도입 등 추진

### 섬유 첨단 섬유제품 개발 및 제조환경 스마트화

- ◆ 패션산업 등을 주도하고 있으나 고부가제품 기술력은 미흡 → 고기능성 섬유 등 첨단 섬유 개발, 생산시스템 스마트화 경주
- (고부가가치화) 탄소섬유, 슈퍼섬유 등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소재의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
  - \* 안전보호용복합 섬유산업육성사업 ('19~'23, 524억원) 등



- (생산시스템) 스마트제조와 B2C유통을 결합한 **봉제·염색·신발 스피드팩토리** 핵심기술개발 지원(스피드팩토리 기술개발사업 '20. 79억원)

## 전자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사업 추진

◆ 주로 소형가전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**AI·빅데이터 대응역량 부족**  
→ **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마련 및 신사업 진출 강화**

- (4차 산업혁명 대응) 중견기업이 빅데이터 수집·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**빅데이터 공동 플랫폼 구축**

\* 사물인터넷(IoT)가전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('20. 20억원)

- (신사업 진출) 홈케어 가전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**부품조달 지원**을 위해 **온라인 부품·제조 정보 플랫폼** 마련

## 3 산업정책-중견기업정책과의 연계 체계 강화

- (산업→중견) 산업별 전략 수립시 ▲가치사슬 내 중견의 역할, ▲중견 애로사항, ▲관련 지원정책 등을 별도 분석·검토하여 반영

\* 중견 업종별협의회 통해 애로 파악, 중견지원정책 가이드북 제작

- R&D과제 기획시 수요조사, 공청회 단계에서 중견기업 CTO·업종별 협의체 등과의 의견수렴 필수화 추진

< R&D과제 기획시 중견기업 연계 흐름도 >



- (중견→산업) 업종별 산업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취약한 품목·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월드클래스+ 등 중견전용R&D 우선 지원 추진

## 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

- (기본방향)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대표 중견기업 성장 지원으로 지역 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

- 지자체, 지원기관\* 공동으로 지역대표 중견기업('21~'25. 약 100개) 선정

\* KOTRA, 지식재산보호원 등 기업지원기관들이 선정절차에 직접 참여

- 산업부·지원기관은 기업 혁신역량(R&D투자, 과제혁신성 등), 지자체는 지역경제 기여도(지역산업정책, 역내 투자·고용 등)를 평가

<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요건(안) >

구 분	주요 내용
지역경제 견인	지역 전략산업 연계, 지역고용, 투자, 지역사회 공헌
거래관계	기업간 거래의 중심에 있어 협력 중견·중소기업이 많은 기업
혁신성	매출증가율 10%, R&D집약도 2% 이상 등

- (지원내용) 상생협력형 R&D, 수출·금융·인력 등 패키지 지원

- 지역대표 중견기업-협력 중소기업간 **공동 R&D**를 지원하여 지역 제조업 가치사슬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역량 제고 촉진

\* 혁신R&D, 특허전략수립 등을 지원하는 예타사업 기획 추진('20)

- 지역별 중견기업 정책수요를 취합하여 **맞춤형 지원사업 설계·제공**

< 지역대표 중견기업 연계지원시책(안) >

분 야	유관기관	상세 지원내용	분 야	유관기관	상세 지원내용
수 출	KOTRA	수출바우처	특 허	지재원	특허 등록, 분쟁 대응
스마트공장	지자체	신규 구축/고도화	인 력	중견련 등	지역대학 채용로드쇼, 채용박람회, 인식개선
신 용	무역보험공사	신용 보증 제공			

- (지원체계) 정책수요 수렴, 협력수요 발굴 등을 위해 '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추진단' 구성('20.上)

\* 지역대표 중견기업, 협력사, 지자체, 지역혁신기관(TP, 대학 등), 중견련 참여

- (지역사업 연계) 지역별 대규모 혁신프로젝트와 연계(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참여기업 우대 등)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효과 극대화

## 라 신남방·신북방 등 신시장 진출 활성화

### □ (ODA 등 협력기반 활용) 중견기업이 신남방·신북방국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(해외거점 등)에 적극 참여

- 베트남, 필리핀 등 주요 거점에 기술전수, 공동R&D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, 국내 기업의 신남방시장 진출 지원

\* 한-베트남 TASK 센터('19~'23, 137억원), 필리핀 금형기술지원센터('19~'22, 81억원) 등

- 미얀마 등 해외 산단에 중견기업 입주를 지원하고, 베트남, 인니, 인도, 미얀마에 애로해소 창구 신설('20)

\* LH는 미얀마 야웅니핀 지역에 68만평 산업단지 조성 추진중(1,300억원)

\* 베트남, 인니, 인도 비즈니스협력센터 및 미얀마 코리아데스크 설치('20)

- 러시아와 소재부품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, 우즈베크·카자흐 등 중앙아와 경제협력 전략회의 등을 통해 현지 프로젝트 수주지원

### □ (신남방·신북방 FTA) 중견기업 관심지역 대상으로 RCEP, 한-인도 CEPA 개정, 한-인니 CEPA 서명, 한-러 서비스·투자 FTA 등 추진

- 협상과정에서 공청회·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중견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반영을 추진하고, 산업협력 의제에 중견진출 기반 마련

\* 황동봉, 탄소섬유 등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 분야 관세인하 추진

-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인니·인도·베트남 등에 EODES\*를 시행하고 중견기업 대상 FTA 활용률 도입·관리

\*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: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

### □ (수출 금융)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·대출 등 수출금융 확대

- 단기수출보험(구매자신용)\* 상품 신설('20), 해외투자 자금 지원(연간 300억원) 등 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(무역보험공사, '20. 20조원 규모)

\* 수출 중견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 업체가 물품대금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(상환 2년이내)하면 무역보험공사가 해당 대출원리금을 담보

- 신산업(전기차·바이오 등) 분야 집중 지원 등 중견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대출·보증 지원(수출입은행, '20~'24. 중견 80조원 규모)

-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 대상 매출채권보험 지원 강화(신용보증기금, '20~'24. 중견 0.5조원 이상)

### □ (전용 수출 Program) 중견기업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

- 내수중견 등 수출역량 단계별 해외영업, 법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지원기업 수도 점진적 확대('20. 250개 → '24. 420개)

\* 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(글로벌지원)사업('20, 220억원)

구 분	지원대상	매청사업비 (최대, 국고, 비중)	지원기간(최대)
Pre 글로벌	중견후보·예비중견	1억원 (7천만원, 70%)	3년
글로벌	월드클래스300·중견	2억원 (1억원, 50%)	5년
Post 글로벌	글로벌 5년후 졸업기업	2억원 (6천만원, 30%)	3년

- 중견기업 수출유망품목 중 '세계일류상품'을 선정해 해외 마케팅, R&D·인력사업 우대 등 지원

### □ (글로벌 파트너링(GP)) 해외 공급망 진출을 위해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구매·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매칭 지원 강화

- 글로벌 기업의 수요검증, 관련 사업기획 등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견기업 수요가 높은 신흥 시장 중심으로 GP센터 확대

\* ('19) 디트로이트, 프랑크푸르트, 나고야, 상하이 → ('20~) 멕시코시티, 아테네 등 추가

### □ (해외지재권 보호)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송 대응, 권리행사 등 맞춤형 IP보호 전략 수립 지원

\*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지원사업('20, 90.4억원)

- 현지 지재권 분쟁 지원을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신남방 국가 등으로 점진적 확대

\* IP-DESK : 中, 베트남, 인니 등 8개국 → 필리핀 등 / 온라인 대응 : 中 → 베트남, 인니 등

- 해외 특허확보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지식재산 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공제사업 내 중견기업의 가입한도(1기업 1계좌) 폐지

## 전략 2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

◆ (현황) 기업 규모·특성별 처한 상황에 따라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향이 상이

- (초기) 정부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자체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만 기술개발·인력 등 여력이 부족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성장에 한계
- (초기 이후) 기존 사업의 성장정체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신사업 발굴이 필요하나 사업성 판단 어려움 등으로 추진에 애로

\* 매출3천억원 이상 신사업 추진단계('19. 실태조사) : 초기발굴 49.5%, 제품개발 19.9%

◆ (지원방향) 초기 중견의 기술력·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초기 이후 중견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 지원

## 가 혁신선도 기술역량 및 인재 확보

### 1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

#### (1) 중견기업 전용 R&D프로그램 지원

□ (월드클래스+) 혁신 잠재력이 유망한 중견기업(매출 700억원 이상) 대상 신산업 등에 필요한 R&D를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촉진

\* '21~'33, 9,135억원 투자 / 신산업 비중 확대('18. 26% → '29. 50%)

- 非R&D 지원시책 연계를 위해 '월드클래스+ 서포터스' 운영

\* 서포터스 : R&D(KIAT·KEIT)+수출(KOTRA·무보)+금융(산은·우리은행·무보) 등 지원기관

□ (부설연구소 역량 강화)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육성(100개), AI·빅데이터 분야 우대

\* 기업부설연구소당 산학연 협력R&D 등 연 7억원, 4년 이내 지원

□ (중견-중소 공동R&D) 중견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·신제품 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

\*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('20. 23억원)

## (2) 국내외 개방형 기술혁신 기반 마련

□ (공공연과 기술협력 강화) 출연연·전문연과 중견기업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상호간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

- (도전기술 공동기획) 기술협력 수요 발굴·매칭을 위한 Tech Day 개최(분기별), 차세대 유망 핵심기술 공동기획 지원

- (전담 멘토링) 분야별 출연연·전문연과 중견기업을 1:1 매칭→시험·인증, 기술컨설팅 등을 전담하는 '멘토링 프로그램' 추진

\* 분야별 기관 : 자동차(자부연), 전자(전품연), 기계(기계연), 화학(화학연), 소재(재료연) 등

- (온라인 애로해소) 신속한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연 연구원 등이 온라인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'K-TechNavi' 운영('20~)

\* 생기연·전품연 등 12개 출연연·전문연과 MOU 체결('19.11)

□ (글로벌 협력거점 구축) 독일, 이스라엘 등 세계적 기술·벤처 강국 중심으로 중견기업 글로벌 협력 지원거점 구축

- (독일) 소재·부품 강국인 독일과의 기술협력 및 유럽시장 교두보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'기술협력 지원센터' 구축('20.上)

- 아헨공대, 프라운호퍼 등 독일내 대학, 연구소와의 공동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, 소재부품 M&A 기업매칭 등을 지원

\* (韓) KIAT-(獨) NRW 경제개발공사 등 관계기관 간 MOU 체결('19.12)

- (이스라엘) 해외 투자사(벤처캐피탈, 엑셀러레이터 등) 보유 네트워크를 활용, 벤처 기술제휴·투자유치 등을 위한 협력거점 구축

\* 한-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현지 사무소와 거점설립 논의 추진

□ (글로벌 자문그룹) 해외 현지 산업·시장 내 영향력이 높은 인사를 글로벌 자문으로 위촉하여 해외 진출·M&A기관 물색 등 자문

- '20년중 소재·부품 협력이 필요한 독일, 이스라엘 우선 위촉(중견연) → 신남방·신북방 등 주요국 대상 확대

### (3) 산업지능화 확산 및 R&D투자 유도

- (산업지능화 확산기반 마련) 기술·인력 등 산업지능화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AI·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 창출·확산
  - \* 산업 데이터·AI 활용 신제품·신서비스 개발 지원사업(가칭) 기획('20)
- 유통분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유통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중견 유통기업 등이 활용 가능한 상품정보 표준DB 구축
  - \* '20. 100만개 → '22. 400만개 상품데이터 구축 목표
- (R&D투자 유도) 중견기업의 소재·부품·장비, 4차 산업혁명, 미래 신사업 관련 R&D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R&D 제도개선 등 추진
  - (제도개선) 신산업 R&D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, 출연금·민간부담현금비율\* 합리적 개선 및 동시수행 R&D 과제수 (최대 5개) 제한 완화 검토
    - \* 現, 출연금 지원비율(혁신제품형) : (중견) 50%이하 (중소) 67%이하,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: (중견) 50%이상, (중소) 40%이상
  - (기술혁신 운동) 업종별 대표 중견기업 중심으로 R&D 투자확대 등 기술혁신 유도 추진 (중견연합회 주관 '기술혁신 운동 협약식' 개최('20))

#### ② 혁신선도형 인재 확보

- (AI·빅데이터 고급인력 양성) 중견기업 채용조건부로 학생을 선발하여 AI·빅데이터 석박사 과정 운영(목표 : 10개 대학, 각 15명 내외)
  - 학비 등은 기업이 부담\*하고, 수요기업-공급대학 발굴·매칭 등 기업-대학 간 가교 역할은 정부·중견권이 수행
    - \* 중기부 계약학과 사업(학비), 산업부 핵심연구인력지원 사업(인건비) 연계 검토
- (출연연 퇴직연구원 활용) 퇴직 출연연 연구원이 중견기업을 방문 또는 취업하여 애로 기술해결 지원 프로그램 운영

- 중견권에 퇴직연구원과 중견기업을 연계해주는 전담 부서 운영
  - \* ReSEAT사업(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사업, 과기부)에서 비용 일부 지원 추진
- (매칭 지원) 우수 인력-기업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정보 제공 및 채용박람회 등 확대
  - 국내 대표 취업포털(NAVER JOB&, Daum 직장IN 등)에 중견전용 채용 웹사이트를 구축·운영하고 매년 상·하반기 채용박람회 개최
    - \*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(상반기), Job Festival(11월경)
- (지역 인재) 지역 우수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'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' 개최
  - \* 지역 중견기업과 대학·특성화고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

## 나 신사업 및 사업재편 지원 강화

- 신사업 발굴 시범 사업(신사업 Light House Project)
  - 신사업 추진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발굴부터 사업화전략 수립까지 쏠단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
    - 민간전문가가 신사업 추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적극적인 신사업 추진을 유도
  - 중견+중견 혹은 중견+중소 대상으로 신사업 개발전략 컨설팅 지원 및 IP·R&BD·글로벌 사업화 등 연계 추진
    - \* '20년 시범 추진하고 '21년 이후 시범결과를 토대로 점진적 확대 검토
  - 전담 지원을 위한 사업화촉진그룹(Biz Accelerator)\* 구성·운영
    - \* 사업화전문회사 및 경영·특허·금융 등 전문가로 구성 → 신산업MD 총괄관리
- (사업전환·재편 활성화) 중견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전환·재편 지원
  - \* 사업전환 중견기업 특례 도입('19.7), 기업활력법 신산업 등 적용범위 확대('19.11)

- 중견기업연합회에 **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**, 기업활력법활용지원센터 (대한상의) 내 **중견기업 Desk 운영** 등 사업전환·재편 컨설팅 지원
- 사업전환·재편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**상법상 규제 간소화** 등 외에 **중견전용 R&D**(월드클래스+), **금융**(Global Challengers 200 등) 등 추가 지원
- \* 신사업으로의 전환·사업재편 촉진과 연계한 기업상속제도 개선방안 중장기 검토

□ **(협력모델 발굴·확산)**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그간 축적된 **경험·역량(인프라)**을 초기 중견·중소와 **공유·협력** 촉진

※ 사례 : 화장품 ODM업체인 C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 법규·상품기획 등 컨설팅 및 기진출한 생산인프라 활용 지원

- ▲GVC 동반진출, ▲인프라(생산시설, 연구장비, 물류창고 등) **공유** 등 다양한 **협력모델**을 **발굴·매칭**(목표 : '24년까지 10개)
- 중견기업이 제시한 협업촉진계획을 바탕으로 (가칭)**협업선도형 중견 기업**을 선정하고 **협력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** 검토
- \* 협업선도형 중견기업지원사업(가칭) 기획 추진('20)

□ **(사내벤처 활성화)** 신사업 진출과 혁신 아이디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“**1社 1사내벤처 운동**”을 추진하고 **관련 지원 강화**

- 「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」의 **민간매칭 비율**을 기업 유형별 차등 ('20)하고 중견기업 임직원 대상 **사내벤처 교육과정 신설**
- \* 정부:기업 매칭 비율 : (현행) 대·중견·중소 1:1 → (개선) 대 1:1.5, 중견 1:1, 중소 1:0.5

□ **(M&A 촉진)** KOTRA 내 **중견기업 전담 M&A 지원창구**를 설치하여 중견기업에 특화된 M&A전략, 매물기업 매칭 등 전문 지원 추진

- 부족한 M&A 수요 대응을 위해 민간 M&A전문 주요 **회계법인과 중견기업연합회간 협력 강화**(MoU 추진)

## 다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

□ **(전용 금융 Program)** 신사업 진출·M&A·스케일 업을 촉진하기 위한 **정책자금 등 금융 지원 확대**

- **글로벌 명장기업**(소부장)·**월드클래스+**(신산업) 등 **혁신형 중견**에 대해 대출한도 상향, 금리인하 등 **종합금융지원**(혁신기업 종합금융)
- \* 혁신기업 종합금융 프로그램 : 재무정보 기준 심사가 아닌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성·혁신성을 감안한 심사를 통해 대출 특별 한도·금리, 금융기관 면책 등 지원 예정(40조원 규모)
- 신사업 진출, M&A, 사업재편 등 **중견기업 성장·도약**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**금융 프로그램 운영**(산업은행)
- \* Global Challengers 200(자금대출, '18~'22. 2.5조원), 성장지원펀드('20. 약 2.5조원) 등
- ‘**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**’ 신설을 통해 중견의 신·증설 투자 적극 지원('20.)

□ **(금융애로 지원체계)** 간담회, 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견기업 **금융애로**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**정부·금융기관·업계간 지원체계 마련**

- \* 금융정책·상품 소개 및 업계 의견수렴 위해 중견금융상담회(세미나) 개최(반기별)
-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산하에 가칭 “**금융애로해소위원회**” 운영

□ **(중견-벤처 상생펀드)** 중견성장펀드(가칭), 권역별 펀드(KDB-오픈이노베이션)를 구성하여 신산업 혁신기술 보유 **벤처·초기중견**에 중점 투자

- \* 중견성장펀드 : ('20) 산업기술정책펀드 등 300억원 조성 → ('21~) 700억원 추가 목표
- \* KDB-오픈이노베이션펀드 : (1호) 부산·경남 413억원, (2호) 광주·전남 211억원 → (3호) 대구·경북('20) 등 점진적 확산

□ **(제조업 R&D펀드)** 제조 중견기업들의 스마트화·융복합화 등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**제조업 R&D펀드** 조성

- \* '20~'22년간 모펀드(2,000억원, 은행), 자펀드(4,000억원, 민간투자) 조성 목표



## 라 후보 중견기업 성장 촉진

- (중소·중견사업간 연계 강화) 중소기업 지원 사업(중기부)와 중견기업 전용사업(산업부)을 연계하여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

\* 연계사업 예시 : 글로벌 강소기업(중기부) → 월드클래스+(산업부)

- 연계 사업 공동 기획·공고, 중견기업 전용사업 내 중소지원 사업 졸업기업 쿼터 설정 등 검토

- (강소벤처형 중견 육성)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계·피출자 중견을 육성하기 위해 '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(가칭)' 신규 추진

- 모기업(관계기업)의 先투자와 매칭\*하여 기술사업화, 공동R&D,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금융·특허·인력 등 연계 지원방안 모색

\* 매칭 비율(안) : 모기업 30% + 지원기업 40% + 정부 30%

- (후보기업 관리체계 구축) 매년 후보기업 수, 성장상황 등 후보기업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

\* 후보기업 : 중소기업 졸업 3년 이내이거나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5% 이상 또는 R&D투자비중 2% 이상인 기업

- (예비 중견)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진출 마케팅, 해외규격 인증 등 맞춤형 수출지원(20~24. 1,000개社)

- 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(스타기업 등) 대상으로 R&D, 기업성장전략 컨설팅 등 지원

\* 지역특화산업육성산업(R&D '20~'25. 약 1.3조원 / 비R&D '20. 약 1200억원)

- (퇴출기업 분석·컨설팅) 중견기업 퇴출 기업\* 대상으로 매출규모나 성격(일반·관계·피출자)에 따른 퇴출원인 분석

\* 퇴출비중 현황 : ('15) 16.8% → ('16) 10.2% → ('17) 7.7% → ('18) 9.1%

- 일시적 경영난이 아닌 장기적 불황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재기할 수 있도록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 추진

- 유예 연차별 기업현황 및 탈락기업 조사·분석 병행

## 전략 3 법·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

◆ 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·유관기관·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원체계·소통·통계기반을 재정비

## 가 성장걸림돌 규제·제도 개선

- (기본 방향) 중견기업 성장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제도·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'중소→중견→글로벌 기업' 성장사다리 강화

- 일자리 창출, 신사업 투자 등 관점에서 법령을 전수 조사하여 업계·전문가·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"성장걸림돌 개선 로드맵" 마련('20)

< 성장걸림돌 주요 현황(예시) >

세제	■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·재산세 감면(중소 취득세 60%, 재산세 50% → 중소 외 취득세·재산세 35%)
R&D	■ 기술 사업화 달성을 위해 투자·융자 등 금융 지원(중소만 해당) ■ 환경분야 신기술인증, 기술검증 등 기술실용화 비용 지원(중소만 해당)
고용	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위한 비용 지원 (중소만 해당) ■ 사업축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유지조치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(중소 휴업·휴직수당의 2/3, 중소 외 1/2)

- (세제) 중견기업들의 투자, 수출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 공제 등 조세감면 특례 지원

< '20년 주요 특례사항 예시 >

관련법령	현황 및 개선 방안	비 고
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)	<p>■(현행)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 세액공제 (중소 7%, 중견(매출 3천억 미만) 3%, 그 외 1%)</p> <p>■(개선) 세액 공제를 한시 상향('20~'21, 중견(매출 3천억 미만) 5%) 및 적용기한 연장('19.12→'21.12)</p>	투자
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)	<p>■(현행) 중소·중견기업(매출 3천억 미만) 수입부가세 납부를 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</p> <p>■(개선) 신청기한 연장(신고만료일 1개월 이내 → 3개월) 및 적용 요건 완화</p>	수출입

## 나 성장 지원체계 정비

### □ 정부 내 지원체계 정비

- (관계부처) 부처간 중견정책 협력을 위해 「중견기업 정책위원회」 활성화
  - \* 중견기업법 제6조의2 : (위원장) 산업부 장관, (위원) 관계부처 차관, 민간전문가
-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보강, 산업·기업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「산업부-중기부 정책 협의회」 개최(수시)
  - \* (주재) 산업부·중기부 차관 공동, (참석) 산업부·중기부 소관 국과장 등
- (산업부-지자체) 지역 중소·중견기업 육성 조례 마련, 지역중견 육성 시행계획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·추진
- (유관기관) 중견기업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·추진하기 위해 「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」 운영
  - \* 참석기관 : KIAT, 중견련, 무보, 산은, 수은, KOTRA, 무협, 산업연 등

### □ 성장촉진지원 전담조직 운영

- 신사업 추진,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성장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 지원하는 “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담 Desk(가칭)” 운영(KIAT 내 설치 예정)
- 성장장애 요인 수시 파악 → R&D·정책자금 등 지원시책 연계·자문

### □ 소통 및 애로해소 체계 구축

- (읍부즈만) 중소기업 읍부즈만 지원단 내 중견기업 전담인력 배치 등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별도 관리하는 지원체계 마련 추진
- (업종·지역) 업종별 리딩 그룹을 구성하여 이업종·기업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지역 대표기업 중심으로 지자체·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
  - \* 업종 : (제조) 자동차, 반도체/디스플레이, 바이오헬스 등 (서비스) ICT, 유통 등 지역 : 동남권, 대경권, 충청권, 호남권 등 단계적 확대

- (CEO) 중견기업 CEO 대상으로 산업·중견기업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해 산업·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
- (Young CEO) 차세대 중견기업 리더 중심 「Young CEO Network」를 운영하여 신사업 진출 및 업종·기업간 협업 촉진
- (CTO) 중견기업 CTO 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술개발 동향·정보를 공유하고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

### □ 공정거래·상생 문화 확산

- ‘중견기업인 책임경영선언’(18.2.22 제정)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중견 정부포상의 30% 이상을 공정거래·상생협력 등 우수기업에 수여
  - \* 중견기업 훈·포장 등 총 30여점 중 10여점(중견기업인의 날’ 포상)
-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·개정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체와 공동 설명회 추진
  - \* 개정 업종(잠정) : 기계, 섬유, 화학, 의료기기, 의약품제조 등

### □ 중견기업법 개정

- 「중견기업법」을 한시법(24.7) → 상시법(「중견기업 기본법」)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성장지원 체계 구축
- 해외관로·기술보호 등 특례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모든 기업으로 확대 검토 (現,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 후 3년 이내)
- 중견기업에 특화된 정책연구기관 지원근거 마련 등 추진

### □ 통계 수집·분석 기능 강화

-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이후 “지속 성장”하고 있는지에 대한 Data 분석 강화를 위해 중견련 내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보강
- 매출·영업이익률·부채 등 기업특성 자료를 보유한 통계청, 한국은행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 통계 신뢰성 확보

## VI. 과제별 이행방안

-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견기업정책위원회,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 점검

추진과제	소관 부처·기관
<b>【전략 1】 산업·지역·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</b>	
가. 소재·부품·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	
①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연계 중견 육성	산업부, 금융위, KIAT 등
②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협력사업 발굴	산업부, 기재부, 금융위, KEIT 등
나. 신산업 및 주력산업 성장 주도	
① 미래차 등 3대 신산업	산업부, KEIT 등
②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	산업부, KEIT 등
③ 산업정책-중견기업 연계 강화	산업부, KEIT, 중견련 등
다.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	
① 상생형R&D 등 예타사업 기획	산업부
②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추진단 운영	산업부, 지자체, KIAT, KOTRA, 산업은행, 지식재산보호원 등
라. 신남방·신북방 등 신시장 진출 활성화	
① ODA 협력기반 활용	산업부, KIAT, KOTRA 등
② 신남방·신북방 FTA	산업부, 관세청, KOTRA
③-1 단기수출보험(구매자신용) 등 무역보험	산업부, 무역보험공사
③-2 해외진출 대출·보증 지원	기재부, 수출입은행
③-3 매출채권보험	중기부, 신용보증기금
④-1 중견기업 글로벌지원사업	산업부, KOTRA
④-2 세계일류상품	산업부, KOTRA
⑤ 글로벌파트너링 사업	산업부, KOTRA
⑥ IP-DESK 등 해외지재권 보호	특허청, 지식재산보호원, KOTRA

<b>【전략 2】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</b>	
가. 혁신선도 기술역량 및 인재 확보	
①-(1)-1 월드클래스+ 사업	산업부, KIAT, KEIT, KOTRA, 무역보험공사, 산업은행 등
①-(1)-2 기업부설연구소 육성	산업부, KEIT
①-(1)-3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	산업부, KIAT
①-(2)-1 도전기술 공동기획 등 공공연 협력	산업부, KIAT, 출연연, 전문연, 중견련 등
①-(2)-2 독일 기술협력센터 등 협력거점	산업부, KIAT, 한-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등
①-(2)-3 글로벌 자문그룹	중견련
①-(3)-1 산업지능화 확산기반 마련	산업부, 대한상공회의소 등
②-1 AI·빅데이터 석박사 과정 운영	산업부, KIAT, 중견련 등
②-2 출연연 퇴직연구원 활용	산업부, 과기부, 출연연, 중견련 등
②-3 중견기업 채용박람회	산업부, 고용부, 중견련
②-4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	산업부, 중견련
나. 신사업 및 사업재편 지원 강화	
① 중견 신사업 Light House Project	산업부, KIAT, KEIT 등
② 사업전환지원센터 등 사업전환·재편 지원	산업부, 중견련, 대한상의 등
③ 협력기반 신사업 진출	산업부, KIAT, 중견련 등
④ 사내벤처 민간매칭비율 차등, 교육과정 운영 등	중기부, 중견련
⑤ 중견전담 M&A창구 등 M&A 촉진	산업부, KOTRA, 중견련 등
다.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	
①-1 혁신기업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	금융위, 산업부 등
①-2 Global Challengers 200 등 금융지원	금융위, 산업은행
①-3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	금융위,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 등
② 중견금융상담회, 금융애로해소위원회 운영	산업부, 관계부처·기관
③ 중견성장펀드 등 중견·벤처 상생펀드	산업부, KIAT, 중견련, 산업은행 등

④ 제조업 R&D펀드	산업부
라. 후보 중견기업 성장 촉진	
① 중소-중견사업간 연계 강화	산업부, 중기부, 관계기관
②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	산업부, KIAT 등
③ 후보기업 관리체계 구축	산업부, 중견련 등
④ 글로벌강소기업, 지역중소기업 육성	중기부
⑤ 퇴출기업 분석·컨설팅	산업부, 중견련 등
【전략 3】 법·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	
가. 성장걸림돌 규제·제도 개선	
① 성장걸림돌 개선 로드맵 마련	산업부, 관계부처·기관
② 조세감면 특례	기재부
나. 성장 지원체계 정비	
① 중견기업정책위원회 등 정부 지원체계 정비	산업부, 지자체, 관계부처·기관
② 성장촉진지원 전담조직	산업부, KIAT, 중견련, 관계기관
③ 옴부즈만 전담인력 등 소통·애로해소 체계 구축	산업부, 중기부, 중견련
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 등 공정거래·상생문화 확산	공정위, 산업부, 중견련
⑤ 중견기업법 개정	산업부
⑥ 통계 수집·분석 기능 강화	산업부, 통계청, 한은, 중견련